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윤승현)

건축가는 싹수를 모른다!

건축은, 짓는 행위의 일련의 과정이고, 그의 결과인 건축물로 증빙되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관찰과 해석이 전제되어 있고, 건축가의 고유한 구상체계와 그에 따른 만들기를 위한 도해가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행위이다. 조건이 다르고, 사연이 다른 모든 집짓기는 모두 개별적 특이성이 있기 마련인데, 위의 과정은 여전히 생략 또는 동어반복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니 짧은 시간에 숙련되기 어려운 작업이 건축일 것이다. 대학 졸업 후 20여년이 지난 중견의 전문가들에게 “젊은”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일 것이고, 당연히 이들의 고단한 작업 과정과 결실을 다른 여타 분야의 신인상같이 단칼에 판단해 싹수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니! 감히 판단해야만 하는 자로서는 매우 고역일 뿐 것이다.

건축은 세상 사는 이야기이다!

젊은 건축가상에 참여한 모든 건축의 작품과 건축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현시대의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사회는 이미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열린 무대가 되었고, 시대는 그를 촉진하는 정신을 존중한다. 건축은 사회의 모습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의 가치는 건축의 내용으로 변환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젊은 건축가상에 출품된 작품들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읽었고, 그의 풍요로움은 건축의 풍요로움으로 영글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때로는 건축적 담론으로 무장되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 그리고 실천이 펼쳐지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다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건축은 걸만 봐도 안다?

건축물은 수없이 많은 요구와 기대를 더 수없이 많은 재료와 방식으로 버무려 하나로 완성된 결실이다. 그 결과는 재료와 구법을 통해 형태와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의 실체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비록 그 과정을 다 보고,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고단한 과정의 내용이 녹여졌을 뿐 없어진 것이 아닐 터, 걸의 형식을 통해 속 사정과 내용을 읽어보려 노력했고, 심사위원들 간의 부단한 논의로 이번 2024년 젊은건축가상의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건축의 사회적 메시지로 찾은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신성진,손경민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제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그에 따른 건축의 구상에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고, 과정속에 여러 변수에 긴밀히 대응하는 능동적 활동이 공공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건축가의 구법적 소화가 전체 건축에 어떻게 결실로 이어지는지를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김한중 (그라운드 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나사와 볼트의 은유적 특성을 통해 건축가 김한중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수없이 많은 재료와 공정의 과정의 산물인 건축이 생성의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텍토닉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이에 따른 건축의 구상과 생산의 과정은 대단히 흥미롭다!

임승모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

만드는 자로서의 주체로서 결과에서 건축가가 하고 싶은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찌 보면 건축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감각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대상 아닐까 싶고, 그를 건축가는 결과로서 증빙하고 있는 듯하다. 조형은 아름답고, 과정은 치밀하다!

김건철(스마트건축사사무소)

건축의 조형과 공간의 조직, 그리고 그를 완성하는 재료와 구법적 처리에 능숙함이 잘 드러나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의 연작이 그의 숙련을 증빙하고 있다. 새로움의 추구보다는 건축의 기본에 충실함이 안정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창규,강정운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이들의 건축물에서는 ‘제주다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원래 분위기의 문제는 느낌의 발로이지 분석과 이해의 결실이 아니라면, 이는 학습의 결과가 아닌 건축가 태생의 본성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끊임없이 놓지 않는 관찰과 기록으로 쌓여진 합의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홍진표,정이삭 ((주)에이코랩 건축사사무소)

수련된 건축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대상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건축의 결과를 드러난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를 통해 증빙했다. 결과가 낫설 뿐, 내용은 충실하다는 판단은 이 때문일 것이다.

조경빈 (필동2가 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작품 전반에 걸쳐 건축가가 집중하는 구조체의 다름에 대해 일관된 태도가 잘 읽혀진다. 건축의 조형적, 공간적 형식의 근간이 되는 구조체 자체가 건축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거칠지만, 정교하게 작업되어졌다.

현승현 ((주)선랩 건축사사무소)

건축의 역할이 한정된 영역만으로 국한되서는 안됨을 증빙해주고 있는 건축가! 그들이 집요하게 놓지 못하고 매달려 완성한 고시원 리뉴얼과 사회주택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아름답기 그지없다!

□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김성률)

신성진,손경민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공공건축으로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다양한 해법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엿보이는 팀이다. 전체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평이한 태도를 보이는데 공공건축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타 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해 보였다는게 맞을듯하다.

김한중 (그라운드 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대단한 신예가 등장했다. 디테일과 정교함이 한국 건축의 탑클래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생각한 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집념이 건물 곳곳에서 드러난다. 물리적 디테일뿐만 아니라 계획의 정교함 또한 탁월하다.

임승모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

만들기를 좋아한 한 건축가의 성장스토리가 무릇 나의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공감의 간다. 그가 물성과 감성의 관계에서 고뇌하고 형태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건축의 흐름에서 하나의 물줄기를 타고 있는 듯하다. 그 흐름에서 탁월한 위치를 선점하기를 응원하고 격려한다.

김건철(스마트건축사사무소)

외관, 공간, 조경과 같이 건축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풍경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넓은 시각이 돋보인다. 그 어느 참가자들보다 만들새가 좋아 건축의 직능이 완성된 건축가라 평가한다. 다만 그 훌륭한 만들새에 비해 실내와 외부(조경)와의 관계가 단조롭다. 상당히 많은 작품수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는건 안정되었다고 볼수도 있지만 다소 단조로운 평면구성에서 읽을수 있듯이 계획적 측면에서 안주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창규,강정윤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제주라는 지역성을 담고자 한 노력이 그 어느 누구보다 진심이였다. 일반적으로 내륙과 다른 기후적 접근(바람, 습도)이 아닌 문학적 관점을 견지하여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지역성을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견지하고 있는 관점이 결과로 나타난 작품에서 공감의 정도가 다소 약한게 아쉽다.

홍진표,정이삭 ((주)에이코랩 건축사사무소)

솔직하고 용기있는 대담성이 오히려 부러운 건축가다. N하우스에서 굳이 어려운 목구조로 리모델링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에서 젊은 건축가의 모범적 자세가 보이면서도 건물중간으로 선홍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담성이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볼수 있게하는 창의적인 내공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한다. 향후의 어색하면서도 대담한 발상의 건축이 기대된다.

조경빈 (필동2가 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다 현재 한국건축을 대변하고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만큼 타 참가자들에 비해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무서울만큼 차분한 침착성이 건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다소 투박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검박한 분위기가 차분하게 유지된다.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선비의 자세가 이런게 아닐까.

현승헌 ((주)선랩 건축사사무소)

가창력도 없고 클라이막스도 없는 노래로 우리를 감동시킨 가수에 비견할 만한 건축가가 등장했다. 발표 중간부터 심사를 하고 있는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했던 고시원.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곳에서 그 또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이 건축가라고 답하고 싶다.

□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신호섭)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위원으로서 무엇보다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건축 동료로서의 깊은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건강한 건축 세상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종의 분화를 통한 건축 생태계의 확장을 꿈꾼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지원해 주신 건축가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 척박한 시대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모든 동료 건축가들에게 진심으로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낸다.

김한중 (그라운드 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일견 독특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김한중 건축가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은 특별하기도 하지만 건축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준다. 여러 스케일에서 집중력 있게 만들어 내는 공간의 구축적 요소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장치가 되어 공간이 작동하게끔 해준다. 나사와 볼트의 비유는 적절하게 이 작동 원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심지어 우리가 잊고 있던 모든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마저 일깨운다. 건축은 그런 기본이 땅 위에 서는 일이라는 걸 말이다.

조경빈 (필동2가 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어떤 꾸준함이 느껴졌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필동2가아키텍츠 조경빈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겸허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며 결국은 경험적 가치로 승화시켜 나간다. 겸손하고 단순하지만 능동적이며 누구보다도 치열하다.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과장되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지만 보이게 되고 듣게 된다. 개인의 경험적 가치로 축적되지만 다층위적인 확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긍정의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현승헌 ((주)선랩 건축사사무소)

어떤 태도로 건축을 바라보고 건축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건축가 현승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삶의 가치적 태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건축가 현승헌은 내재화되어 일반적으로 이미 거세된 삶의 태도적 가치를 끝없는 용기로 다시금 불 질러 끝내 승화시켜 보여준다. 그 의미는 긴 시간 동안 해온 건축 작업들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더 다양해질 행보를 기대하게 해준다.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기를, 진정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신성진,손경민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우리의 보편적 일상을 담아내는 공공건축의 영역은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가 되었다. 공공건축을 기반으로 탁월한 작업들을 해내고 있는 신성진, 손경민 듀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건축에서의 공공성이 담보해 낼 더 큰 긍정적 미래가 보였다. 점점 더 복잡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들 듀오가 만들어 줄 양질의 공간들은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경험치로 축적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볼드아키텍츠는 스펙트럼을 넓혀나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는 사무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확신한다.

임승모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

건축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작은거에서부터 가장 큰 것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밀도 있는 작업을 통해 구현되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은 건축가 임승모의 면면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연결 지점들이 매우 흥미롭고 건축이 구축 되는데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어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모습들이 기대된다. 프로젝트 하나 하나 섬세하게 대하는 자세가 훌륭하고 발전적인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건철(스마트건축사사무소)

심도가 있는 풍경을 통해 안과 밖, 밖과 안 이 서로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엮이고 건축가 김건철이 말하는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이해하게 된다. 이때 조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건축이 하나의 장면으로서 통합적인 scape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매우 정교한 디테일들이 또한 구조적 해법들이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가 김건철이 성취해온 충만한 시간 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창규,강정윤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우리가 제주에서만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지역성은 매우 특별하며 이는 건축가 강정윤,이창규 가 조사하고 보여준 어느 돌로 된 창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간의 작업들을 통해 관찰되는 거칠지만 자연스러운 재료의 조합과 대비되는 강렬함,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조경까지 에이루트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홍진표,정이삭 ((주)에이코랩 건축사사무소)

생경함, 낮섬, 대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는 재미는 쉽고 가벼울 수 있으나 건축가 홍진표와 정이삭이 던지는 건축적 화두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약에 건축이 새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규범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용기있는 실천을 통해서 일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열어두는 재미와 흥미로움,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적 해법은 우리가 이들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들이다. 건축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임지택)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신성진,손경민)

작은 규모의 공공건축에서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건축적 완성도와 성취가 인상적이다. 예산과 건축조건의 한정된 범위에서 자신만의 해법과 상황에 따른 구축방식을 통하여 건축적 질을 획득한 점이 뛰어나다. 다만 도시와 농촌지역의 공간적, 문화적 맥락차이에 따른 해석의 일관성이 드러나기에 프로젝트의 수가 다소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매우 높기에 다음 프로젝트에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라운드아키텍츠(김한중)

각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규모와 발주처에 상관없이 매우 뛰어나다. 건축가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첫째,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을 조직하며 엮어내는 집요함 속에 자신만의 구법과 상세로 얻는 건축적 완성도. 둘째, 시스템구축을 위한 본인만의 실험적 공방을 유지하며 실재 프로젝트와 다음을 위한 체계적 연구. 이 두 가지가 돋보이는 건축가이다. 이 둘 모두 건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아직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조화롭게 완성되진 않았으나 시간에 따른 완숙도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다.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임승모)

놀이공간과 엠블럼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 접근과 해법이 흥미롭다. 다른 건축프로젝트들, 특히 옥인 단 단단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질감과 양감의 건축은 악조건의 대지 안에서도 건축가의 조형 의지가 매우 잘 드러나며 도시 일상 건축의 격을 몇 차원 승격시킨다. 비례 교회 프로젝트에서의 이질감이 다소 아쉬웠던 PT였다.

스마트건축사사무소(김건철)

매우 공간 지향적이며 공간조형미가 뛰어난 건축을 보여준다. 공간 전개와 연출에 있어서 긴장과 완화의 조화가 돋보이는 건축공간을 완성하고 있으며 특히 조경과의 공간적 연계가 멋지다. 작품전체에서 젊은건축가라고 생각되기에는 어려운 완숙도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완숙도가 컨스트럭션의 관성과 맞물려 새로움이 다소 아쉽다.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이창규,강정윤)

지역성에 기반한 건축의 지향성이 흥미롭다. 제주건축 및 마을 연구조사내용이 탄탄하여 인상적이었으며 작지만 강한 제주건축의 현재성을 확보하기위한 설계들을 보여준다. 재료와 구법, 문화적 컨텍스트를 연결하기 위해 선별한 5개의 테마들도 훌륭하다. 지역성에 기반한 건축이 그렇듯이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건축적 지향이 우수하다. 시간이 쌓일수록 지역성에 기반한 건축의 힘이 더욱 강하게 들어날 걸로 기대된다.

(주)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홍진표,정이삭)

초기부터 심사위원들간에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건축가들이다. 프로젝트마다 보이는 일상성의 재기 발랄함은 그들의 건축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준다. 거침과 키치한 일상의 미학을 자기검열 없이 자신들의 무기로 승화시키는 용기와 힘은 젊은 건축가들이 가질 수 있는 통상적 자유를 능가한다. 기성적 사고방식의 틀 바깥에서 이루어내는 자신감과 유쾌함이 기성 시스템과 하나가 되는 때가 되면 그들의 작업은 훨씬 더 폭발적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조경빈)

현대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건축 작업은 세계 어느곳 보다 치열하게 상황적 논리들과 싸우며 진행된다. 조건과 한계가 얼마나 건축가들의 사고와 그들의 작업을 구속하는지는 건축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척박한 건축 설계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아주 훌륭한 건축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1차 심사에서부터 무수하게 언급되었다. 그중에서 작업의 일관성과 건축적 성취도가 가장 뛰어난 건축가로 뽑기에 손색이 없다.

(주)선랩건축사사무소(현승헌)

현승헌 건축가는 우리가 사회에 지고 있는 마음의 빙을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갇아 나아가고 있는 건축가이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사회적 현실을 건축적, 공간적 해결로 도전하는 그의 용기와 독심에 찬사를 보낸다. 그가 학창 시절부터 참여하고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건축의 주제가 사회에 보내는 작은 파동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성장하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그 와 함께한 수많은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2024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정수진)

신성진 손경민(볼드아키텍프건축사사무소)

진주의 프로젝트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도면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충만한 공간감을 표현하는 반면 나머지 작품들은 복합적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화된 형태와 물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비슷한 재료와 사용법, 유사한 언어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이지만 앞의 두 작품과 나머지 작품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이 건축가들에게는 일관성을 가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면화 시키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발표 중 언급한 <차이>라고 이해한다. 어떤 차이인지 그들의 답이 궁금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그 차이에 관한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다.

임승모(에스엠엘건축사사무소)

만들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지금의 임승모 건축가인가보다. 과정을 시간대로 보여주는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그가 왜,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지 미루어 보게 된다. 소품, 의자, 인테리어, 건축. 닥치는 대로 만들고 그려온 사람인 것 같다. 건축에 관한 생각이나 표현 방법은 무한한 것 같지만 의외로 제약이 많고 한정되어 있다. 이 건축가는 그런 <한정>이란 단어에서 자유롭고 싶은 것 같다. 재료의 선택과 사용, 구축의 방법,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요소들이 조금의 변화와 만나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해가고 달라지는지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실험하는 중인 것 같다. 작은 소품이나 가구를 만들어 공간에 배치한다는 것은 통일감 있는 완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이다. 임승모 건축가의 최종의 욕심은 어떤 모습일까.

홍진표, 정이삭(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이들의 작품은 일반적인 건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재미있다 / 흥미롭다> 이 건축가들은 아마 사는 모습도 신나고 별날 것 같다. 새로운 엄청난 것을 만든다거나, 멋지게 평가받을 잘 만들어진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 보인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들에 애정이 넘치고 치밀하게 관찰함에 능한 것 같다. 그들이 보여준 결과물들은 주변에 흔하게 남은 것들이 이들의 머리와 손을 통해 다시 제작된 서커스쇼를 보는 느낌이었다. 낯설지는 않아 보는 이의 기억을 충분히 가동 시키지만 익숙하지도 않아 생소하게 와닿는 우연한 경험. 이 건축가들의 작업을 표현할 마땅한 형용사를 찾기 힘들지만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켜트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김건철(스마트 건축사사무소)

너무도 감각적인 장면들이다. 그의 작업은 표현하고자 하는 또는 꼭 보여주고 싶은 스토리가 충분히 담긴 한편의 화집 같았다. 형태, 공간, 조경 그리고 주변의 풍경들. 비록 몇 장 안 되는 짧은 단면들이지만 그의 머리 속을 여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건축가의 의도는 시공으로 완성된다. 의도의 시공이란 결국 건축가가 얼마나 현장에 개입하는지의 끈질긴 결과치라 생각한다. 한사람의 머릿속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장면들을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애정이 건축물로 그리고 공간으로 드러난다. 긴장한 모습과 버벅이는 말투였지만 쏟아내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건축에 관한 그의 신념과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창규 강정윤(에이루트건축사사무소)

제주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국적이다. 그런 <제주>라는 장소가 이들 건축가 부부의 특별한 소재가 되었나보다. 짧게 잘 정리된 몇몇 문장들이 충분히 느껴지는 작업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작업을 몇몇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잘 파악하고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무형의 현상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모티브로 창작을 한다는 것은 모든 건축가의 공통된 과제이다. 특히 말 없는 <풍토>라는 것을 만질 수 없는 공간에 녹여내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도 막연하고 어렵기 짝이 없는 일일텐데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직은 안개 속에 숨겨진 느낌이지만 앞으로 그들이 그려내는 제주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다.

김한중(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작은 부분에 집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자니 <오타쿠>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에게 집착이란 단어는 작업의 원동력이며, 건축은 완벽으로 향하는 자기만족으로 보인다. <엄격한 디테일의 향연>이란 표현이 그의 건축에 적합할지 모르겠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고민의 결과지만, 결국 그가 추구하는 신념의 완성은 모두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무한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김 한중 건축가의 작업은 스스로를 들볶고 피곤하게 만들어 얻어내는 결과치인 것 같다. 그가 괴로운 만큼 우리는 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그의 정서를 맞볼 것이다.

조경빈(필동2가 아키텍츠)

젊은 건축가라기에는 이미 자기색이 짙고 농밀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균형 잡힌 매스가 주변과 조우하는 방법, 단정한 공간감은 그의 건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튀는 특별함> 대신 <절제되고 이성적인 언어>들은 사회적 환경을 책임져야 할 건축가로서의 공공성과 감수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다. 동일한 톤의 작업들이 반복됨은 자칫 지루하거나 회의감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묵묵히 관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또한 건축가의 근본적인 중요한 자세이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절제의 미학을 표현하는 이 동료 건축가의 작업을 앞으로도 늘 찾아볼 것 같다.

현승현(선랩건축사사무소)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특히 고시원을 일컬어 ‘우리 집, 우리가 살 곳’이라 말하는 대목에서 뭉클함을 느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누구나를 위한 건축. 건축은 누구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의 손이 닿지 않는 건물들. 건축의,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해 이 젊은 건축가가 지적했다. 건축은, 건축가는 여러 방법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호불호를 따지기 앞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인간적인 환경에 관한 공부는 중요하다. 보통의 건축가인 나로서는 감히 접근할 엄두도 못 내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고 신념에 찬 한마디 한마디는 충격이었다. 이 후배 건축가의 마지막 바램처럼 사회적 관심과 제도가 좀 더 체계화되어 누구나 건축가의 건축물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누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함께 기원한다.